

## 참으로 안타까운 교육의 문제들

吳 鐸 藩

(高麗大 國語教育科)

이수선했던 2 학기도 다 저물고 있다. 대학의 문제가 사회의 여러 고민을 떠안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새삼스럽게 오늘날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과 사명에 대하여 알가알부할 의도는 애당초 없으나, 대학의 몸살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물겹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언제나 지울 수 없는 생각은 과연 이 나라에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는 자학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 대학 입시 제도 개선책이 발표되었을 때 필자는 논술고사가 두 해만에 완전 폐기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논술고사 문제를 예상하고 출제하고 법석을 부리더니, 곧바로 또 폐기되는 것을 보면서 교육의 문제가 이처럼 시중잡배들의 흥정처럼 가볍게 처리되어도 되는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정책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바로 이태전에 논술고사를 신설하고 그 합당성을 주창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막강하던 제도가 자취를 감추는가. 그 제도가 합당치 않아서 폐기했다면, 그 제도를 주창하고 도입한 사람들에게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분교 정책이 비로소 일관성을 띠게 되고 신임을 얻게 된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는 식으로 한 나라의 교육 제도가 몇 사람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믿고 교육을 시킨단 말인가.

제 5 공화국이 출범할 때도 필자는 사색이든 공석이든 이런 말을 하며 살았다. 단임제가 국시처럼 강조되는 이 마당에서, 유신 체제 때의 장기 집권의 논리를 마련해 준 이른바 유신 헌법 학자들은 개인의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자꾸 장기 집권의 타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유신 때의 그 험있던 학자 논객들은 다 어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또 단임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는가.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식인의 소신과 양심에 관한 자조적인 물음이다. 가장 견고해야 할 지식인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이렇진대 장차 이 나라의 앞길에 참으로 암담한 것이 아닌가.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변하는 정책일수록 그 아침 저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미래의 동량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 그때 그때 단견에 의하여 마구 변질되고 변칙 통용되는 일이 무과된다면 그것은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의 행위와 다름이 없다.

사람을 다루고 가르치는 직업인 교육자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절하도 물론 문제이다. 상품이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보다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도덕이 이와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 마치 대학교수를 사회의 필요악처럼 인식하고 정권의 하

수인처럼 인식하는 못된 버릇은 아주 없는 것인가. 교육자의 양심에 근거하지 않은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인 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편리한 방법에 따라서 교육자를 함부로 '부리고', 멋대로 '시키는' 일은 근절되었는가. 이미 대학교수는 고학력의 유일한 꿀벌집이라는 체념만을 하면서 무력화되어 가는 일을 지양하고 그들을 국가 발전의 거대한 합의체로 재집결할 그야말로 敎育的 鬪爭은 아주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오늘날 대학의 말석에 자리잡고 있는 필자 스스로의 운명이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다. 눈치와 배짱으로 무장한 수험생들의 발걸에 유린된 오늘의 대학이 당면한 참상은 이렇듯 학내외의 온갖 격랑에 휘말려서 이제는 어찌할 수도 없는 막다른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생각만 앞설 뿐이다.

한국 문학을 전공한다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이제는 문학보다는 문학의 가면을 쓴 돌맹이나 몽둥이 또는 푸념이나 눈물에 더 관심이 많고, 역사를 공부하려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이제는 역사보다는 역사의 가면을 쓴 지배와 피지배의 흑백논리에 더 관심이 많고 보면, 연구실과 강의실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찬란한 고독'으로 엮여지는 知性은 점점 퇴색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대학의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한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계속해야 하고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大學이 살아남기 위하여 보다 큰 헌신을 다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체념과 포기를 벗어나서 우리들이 바로 조국의 운명과 전신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다할 때, 평가절하될 대로 된 교육자의 기능도 회복돼 나갈 것이다.

대학의 문제는 온전하게 대학만의 폐쇄되고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 그 사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때, 대학만이 미널 하우스의 따뜻한 공기처럼 평화로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대학의 정신적인 몸살을 우리 사회 모

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치유 방안을 논의할 때라야 비로소 大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애정 있는 해결 방안을 모두 함께 강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혹시 대학을 적대시하거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악성 종양으로 보고 대담 수술할 생각만 한다면, 대학 자체의 생명을 시한부로 만들고 손에 수술용 칼을 든 그 사람들도 따라서 시한부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법으로 대학을 대하고 그 몸살을 걱정할 때라야만 바로 그 곳에서 조국의 미래가 싹트고 가지 뻗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종강이 박두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시와 소설을 가르치며 하는 필자의 손길은 떨리고 치욕적이다. 김소월의 시 한 줄, 운동주의의 시 한 줄을 강의하면서 또 김유정의 「봄·봄」을 이야기하면서 필자는 짐짓 신명을 내어보지만 그러나 터져 나오는 재채기와 콧물 속에서 필자는 아직도 치욕적인 삶을 꾸려 나가는 무력한 놈이다. 문학의 당당함을 역설하면서, 교육의 지고한 사명을 강조하면서 필자는 필자의 전 인격을 이 강조점에다 정말 걸고 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앞선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를 믿듯 우리의 대학을 믿으며, 우리의 학생들을 믿는다. 수난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올 영광의 미래를 믿는다. 그 미래를 주도할 세력, 오늘날의 벼룩 없는 학생들을 믿는다. 대학이 대학 나름의 고색창연한 기능과 사명에 안주하여 현실과는 유리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러나 대학을 긍정하고 지원할 현실의 일꾼들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신한다. 또 오늘의 우리가 처한 고난과 허무가 언젠가는 그만한 대가를 가지며 자신감 있는 힘의 원천이 되리라는 점도 필자는 믿는다.

요즘 영하로 내려간 기온 탓일까. 대학은 아주 춥다. 그러나 난초잎이 드리난 필구미를 제 스스로 어찌지 못하는 것처럼 대학은 그냥 혼자서 추울 뿐이다. 그러나 난초가 三冬을 견디듯 대학도 이 혹한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으리라. \*